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 분석: ‘거주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한나* · 김영호**

The Analysis of ‘Quest Activity’ Chapters in Korean Geography Textbooks Published under 2009 Revised Curriculum: Focused on ‘Changes in Residential Space’

Hannah Kim* · Youngho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탐구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향후 교과서 탐구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탐구활동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제의 유형, 발문의 성격과 구조적 특징, 제시 자료의 조합, 탐구활동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5종 교과서 분석 결과, 탐구활동의 충분한 비중확보가 부족했고, 고차사고력을 자극하는 과제 유형이 적게 나타났으며 발문의 위계성도 대부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조합을 통한 자료제시가 미흡했으며 부적절한 탐구활동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5종 교과서 간의 분석결과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탐구활동의 비중, 과제 유형, 발문, 구조, 자료 등을 고려한 탐구활동의 개선이 요구된다.

주요어 : 탐구활동, 2009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한국지리, 지리교육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quest activity’ chapters in Korean Geography textbooks published under 2009 revised curriculum. As a result, this study present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current 5 major textbooks and provide future directions. This study analyzes proportion of quest activity in the textbook, problem type, question type and structure, and overall appropriateness. The results show that quest activity does not have enough proportion in the textbooks, and problems do not stimulate high order thinking. In addition, study resource were poor organized, and inappropriate quest activity were observed. This study insists structural improvement on quest activities particularly in problem types, question, structure, resources.

Key Words : Quest activity, 2009 Revised curriculum, Textbook, Korean geography, Geography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재 우리의 교육여건 하에서 교과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고 수업의 핵심을 이루는 교수·학습의 매개체로서 기

능하기 때문에 그 구성 및 체제와 내용은 교사 및 학습자의
교수·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간용, 2005:406). 특히,
교수·학습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과서의
구성 중 탐구활동은 이론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 과제에
서부터 학습자가 주변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있는 일상적
인 문제와 시사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 상황과 사례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생(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Korea University, gkssk29@korea.ac.kr)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younghokim@korea.ac.kr)

등을 제시하여 주어진 상황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비판적인 사고의 확장과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김찬빈, 2008). 다시 말해,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한 탐구과정에서 고차사고력을 함양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교수-학습에서 핵심적인 도구인 교과서의 구성 체계 중 의미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탐구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사회과에서 활발하게 교과서 탐구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리교육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가 다른 교과목에 비해 부족하게 나타났다. 특히, 현행 교육과정인 2009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연구로는 이준구(2012)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지리」 교과서 도시 단원 내용을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그 내용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하고 이후 교육과정의 방향을 탐색한 것이 있었지만 탐구활동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지리교육에서 탐구활동은 학습자의 고차사고력과 공간능력, 도해력과 같은 지리적 기능을 함양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2009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탐구활동이 현행 사회과 및 지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학습자에게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2009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을 분석하였다.

7차 교육과정 이래로 지리교과서에서 자기 주도적 및 탐구 지향적 학습이 강조되어 탐구활동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탐구활동은 지리교육에서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닌 학습자의 고차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지닌 탐구활동에 따라 교과서의 완성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서 탐구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다른 교과서와 비교하여 각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교과서를 비교하여 단순히 비판하고 교과서 간의 우열을 가려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효과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사회적 쟁점,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지리교육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총 5종의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거주 공간의 변화” 단원 탐구활동이다. 촌락 및 도시단원은 학습자들이 주변에서 그 사례를 쉽게 접하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고, 특히 변화하는 최근의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어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 탐구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탐구활동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연구 내용은 5종 교과서에서 탐구활동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과 과제 유형별 비중, 발문 유형 및 구조적 특징, 탐구활동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형태, 탐구활동의 적절성 분석이다. 탐구활동의 양적 비중 및 과제 유형별 비중과 자료 형태는 정량적 분석을 하였고 발문 유형 및 구조적 특징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하였다. 탐구활동의 적절성 분석은 탐구활동의 예시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로 탐구활동의 양적 비중은 교과서에서 탐구활동이 차지하는 전반적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교과

표 1.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 해당 분석 부분

교과서	탐구활동
A	활동하기, 더 알아보기, 토론하기, 한국지리 세계 지리 마주보기, 사례 탐구, 대단원 매듭짓기(함께 활동하기)
B	탐구활동, 심화활동, 토론학습, 대단원 마무리(정리하기, 되짚어보기 제외)
C	탐구, 주제탐구, 단원 마무리(사고력 키우기, 수행평가)
D	탐구활동, 한 걸음더, 사례활동, 주제학습, 논술토론, 대단원 마무리(활동하기)
E	활동, 테마여행, 더 알아보기, 대단원 마무리(지리탐구)

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탐구활동의 과제 수와 지면 수를 교과서 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단위 탐구활동에 제시된 과제를 김성희(2003)의 분류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어떤 유형의 과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 분석하였다.

두 번째, 발문분석은 먼저 사고수준에 따른 Blosser의 발문 분류를 토대로 발문 유형을 분석하였다. 어떤 유형의 발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분석한 뒤 발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간용(2005)의 분류에 따라 발문 구조별 탐구활동의 비중을 분석하고, 탐구활동의 위계성이 각각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세 번째, 탐구활동 자료 분석은 한 단위의 탐구활동 내에 제시된 자료들을 각 형태별로 그 비중을 분석하고, 여러 자료가 조합된 형태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하였다.

네 번째, 탐구활동의 적절성은 각 탐구활동의 교과내용과의 연관성, 제시 자료 및 발문과의 연관성, 자료의 적절성, 난이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못한 예를 찾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탐구활동의 의의

사회과에서는 사회탐구능력 신장이 중요한 학습목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문제 파악 및 인식, 가설의 설정, 자료의 분석과 해석, 결론의 도출, 결과의 적용과 예측과 관련된 능력들이 중시된다. 더 나아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사회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능력, 다양한 자료의 과학적 방법을 통한 탐구능력, 정보 수집 및 활용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학습자들이 학습상황에서 기대되는 지적 기능의 신장과 주위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배운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박은아 등, 2005:16).

탐구력은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사고력이라고 정의된다(차경수 등, 2008). 논리성과 과학성을 기본으로 한 탐구력은 자기의 주장

을 경험적 근거의 바탕 위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사고와 자세를 가지게 한다. 이러한 탐구력은 교사의 강의에서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과에서는 기본 지식과 원리의 학습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사례와 자료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의 분석, 활용을 통한 탐구능력 향상이라는 기능적인 면을 교육 목표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구성요소 중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탐구활동이다.

각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정리한 탐구활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친재교육: “자료를 통해 본문에서 기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단계적인 활동을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으며 학습 내용과 연관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
- ㈜지학사: “본문의 중요 내용을 탐구하고,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 보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며 고차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학습 내용의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
- 비상교육: “자료 분석을 토대로 탐구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창의력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
- ㈜미래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성취 목표를 스스로 탐구할 수 있으며 사고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론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깊이 있고 구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금성출판사: “본문 내용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각 교과서에서 정의한 탐구활동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본문에서 학습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 학습자의 고차사고력의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차사고력(고급사고력, Higher Order Thinking)은 과거에 경험한 것을 그대로 재생하거나 단순히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준을 응용하고 다양한 방안 중에서 선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

려고 하는 기능이다(조은아, 2008). 이것은 기본적인 사고를 확대하고 넓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확장적 사고이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최근에 사회과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의사결정력, 탐구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메타인지 등이다.

탐구활동은 보통 수업시간에 기본 내용과 원리를 학습한 후에 그를 토대로 하여 소단원 또는 중단원 후반에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탐구활동은 교과서 학습 내용의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의 확장 및 사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활동이다(김다현, 2007). 그러므로 사회과의 교육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데에 탐구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탐구활동은 교과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탐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학습자의 사고수준을 고려한 여러 유형의 발문을 제시하여야한다.

2. 교과서 및 탐구활동 연구

교수·학습의 주요 도구 중 하나인 교과서는 이전부터 다양한 교과목에서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교과교육 분야에서 교과서는 그 구성체제, 분량 등의 정량적 분석에서부터 내용, 사고수준과의 연관성 등 정성적 분석까지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지리교육에서도 많은 연구를 통해 교과서가 분석되었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지리과목을 크게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구분했을 때 세계지리보다는 한국지리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지리」 교과서의 전체 체제에 관해 분석한 최근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임경(2002)은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단원별 분량, 교과서별 체제 내용비교, 내용 전개 체계 비교와 교과서 내용의 체제를 분석하였다. 신혜원(2005)은 제 7차 교과서와 제6차 교과서의 비교를 통해 단원의 전개방식, 학습자료의 분량, 탐구활동의 비중 등을 분석하였다. 박미연(2010)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회1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을 단원 전개 체계, 구성 요소, 분량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교과 내용의 적합성과 제시된 학습 자료의 타당성과 탐구활동 구성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지리 교과서를 더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지혜(2008)는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서의 지리부분에서 ‘농새바람’, ‘화산’, ‘도심’, ‘간척사업’ 등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학습개념을 분석하여 그 위계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종운(2009)은 학습자에게 학습 과정이 더 의미있게 할 수 있는 정교화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고 이론에 적합한 분석 준거들을 마련하여 준거에 맞는 내용을 각 교과서에서 찾아 이것이 합당하지 여부를 밝혔다.

7차, 2007개정, 2009개정에 걸쳐 점차 교과서 탐구활동의 역할이 증시되면서 교과서에서 특정 부분에 해당하는 탐구활동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사회과에서 탐구활동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간용(2005)은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의 자료, 유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SOLO 분류 등을 종합하여 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김다현(2007)은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 탐구활동의 발문구성을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에 따라 분석하고, 지문 제시 유형과 발문의 위계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탐구활동 및 발문과 교과내용과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탐구활동이 교과서 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김찬빈(2008)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탐구활동전체를 비중, 발문 유형, 자료형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혜진(2012)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탐구활동의 발문을 Bloom의 교육목표분류와 Blosser의 사고수준분류에 따라 분석하였고 탐구활동에서 활용된 자료의 활용과 발문간의 위계성을 분석하여 탐구활동 발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III.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 분석기준

1. 탐구활동 비중 및 과제 유형 분석

탐구활동 양적 비중 분석은 학습자들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충분한 정도의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탐구활동이 분포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대단원 전체 지면 수 대비 탐구활동의 지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모든 탐구활동이 지면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탐구활동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을 합쳐서 지면 단위로 표시하였다. 각 단원을 분석한 뒤

교과서 전체에서 탐구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하여 탐구활동이 충분한 분량을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대단원 전체 탐구활동 개수를 세어 단원별 탐구활동 개수를 비교하고 구성비를 표시하여 각 단원별로 탐구활동이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탐구활동의 과제 유형분석은 학습자의 고차사고력을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탐구활동이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탐구활동의 과제 유형은 김성희(2003)의 분석 기준을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2. 탐구활동 발문 분석

'발문'은 학습자로 하여금 탐구를 지향하게 하고 독자적 탐구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교수기술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수업 과정에서 비판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교수방법이다(이남호, 2007). 질문은 지식 및 사실에 대한 물음 혹은 알지 못하거나 궁금한 것에 대한 물음 등이지만 발문이란 발문을 하는 자가 알고 있는 내용 또는 전하고자 하는 것을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 알게 하고 사고의 확장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현주·오은혜, 2014).

탐구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이 발문을 통하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 사례, 기사, 글, 사진, 지도,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으로 접하게 된다(김다현, 2007). 이를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수준을 넘어서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된다. 발문은 학습자들이 단순한 교과내용 습득만으로는 사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도움을 준다. 또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주어진 단원의 지식·기능·가치 등에 관련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탐구활동에 제시된 발문에 따라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수업 및 학습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탐구활동의 발문 분석은 (1) 사고 수준에 따른 분류와 (2) 발문의 구조적 특징으로 구성된다.

1) 사고 수준에 따른 발문 분류

발문은 어떠한 준거에 따라 나누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본 연구에서는 Blosser의 발문 분류체계를 분석기준으로 삼아 사고 수준에 따라 탐구활동의 발문을 분석하였다.

Blosser는 발문을 크게 수업적 발문, 운영적 발문, 수사적 발문으로 분류하였다(강용욱, 1994 재인용). 그 중 수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업적 발문은 다시 폐쇄적 발문과 개방적 발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쇄적 발문에는 인지·기억적 발문과 수렴적 발문이, 개방적 발문에는 확산적 발문과 평가적 발문이 속한다. 발문을 사고수준에 따라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으로 이분했을 때 폐쇄적 발문(closed questioning)은 낮은 수준의 발문, 개방적 발문(open questioning)은 높은 수준의 발문으로 구분된다(강용욱, 1994). 폐쇄적 발문과 개방적 발문을 구별하는 판단은 발문 자체가 가진 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문에 대해 학습자들이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사고 수준에 따른 것이므로 탐구활동이 고차사고력을 신장시키는지 알아보기에 적합하다(김시연, 2001).

2) 발문의 구조적 특징

교과서 탐구활동을 살펴보면 한 단위의 탐구활동이 여러 발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탐구과제들이 어떤 관계로 조직·배열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간용(2005)의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발문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간용(2005)은 출판사 및 내용에 따라 여러 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탐구활동을 탐구과제의 조직·배열을 기준으로 단독구조, 나열구조, 계열구조 등 세 구조로 분류하였다. 세 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단독구조란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의 탐구과제만이 제시되는 구조이다. 대체로 사고 전개를 위한 단계적인 발문의 제공 없이 곧바로 고차적인 사고나 조사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나열구조란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개 이상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으며 교과서 개발자나 집필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배열하였다 할지라도 서로 병렬적, 무작위적 관계를 이루면서 과제 간 논리적, 계층적 구조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조이다.

계열구조란 주어진 자료에 기초하여 두 개 이상의 과제가 제시되면서 동시에 사고 작용의 점층적 위계나 내용적 포섭 관계가 나타나도록 형성되어 있는 형태이다. 탐구과제가 사실이나 정보의 인식, 재현, 기억, 회상, 작업 등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을 요하는 것에서부터 비교, 추론, 관계, 대안 등 복합적인 사고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이다.

3. 탐구활동 적절성 분석

탐구활동의 발문은 교과내용, 제시자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김다현, 2007).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탐구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발문 자체가 학습자의 사고수준을 고려하여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탐구활동에 제시된 자료와 발문이 교과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또는 그 자체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교과서 탐구활동을 분석하였다¹⁾.

- 교과 내용과 탐구활동의 연관성
 - : 자료와 발문을 모두 포함한 탐구활동 전체의 내용이 학습한 교과내용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 탐구활동 자료와 발문과의 연관성
 - : 탐구활동에 제시된 자료와 주어진 발문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자료를 통해 주어진 발문을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 탐구활동 자료의 적절성
 - : 제시된 자료가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꼭 필요한 자료인지 또는 자료 자체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 발문 자체의 적절성
 - : 불필요하게 사고수준을 제한하고 있는지, 추상적인 발문을 하는지, 어렵나 부적절한 단어 사용을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 난이도의 적절성
 - :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활동을 수행하는데에 적절한 난이도인지 분석하였다.

IV.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 분석결과

1. 탐구활동 비중 및 과제 유형 분석

1) 양적 비중

앞서 제시한 표 1의 탐구활동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표 2는 각 출판사별 탐구활동의 단원별 지면 비중 및 교과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면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A의 경우 활동하기, 더 알아보기, 토론하기, 한국지리 세계 지리 마주보기, 사례 탐구, 대단원 매듭짓기 등 다양한 구성으로 활동 과제를 제시하였다. B의 경우 활동 과제를 제시하는 형태의 탐구활동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읽기자료’나 ‘도움자료²⁾’의 비중이 높았다. 활동을 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수업 중 교사의 활용 정도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고차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C는 대부분의 탐구활동이 넓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한 탐구활동에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활동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종 교과서 중 교과서 전체 분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탐구활동의 절대적 지면 수도 그만큼 많게 나타났다. D는 탐구활동이 거의 두 면 당 한 면 분량으로 구성된다. 왼쪽 면에는 본문 내용이 제시되고 오른쪽 면에는 탐구활동이 전체로 제시되어 매 본문마다 연계된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는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탐구활동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를 탐구활동에서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탐구활동이 차지하는 지면 비율은 5종 교과서 중 가장 높지만 이는 본문의 자료가 탐구활동 자료로 중복되어 활용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E의 탐구활동 지면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5종 교과서 모두 특정 단원에 탐구활동 비중이 치우치지 않고 각 대단원에 고른 비율로 탐구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 사진, 그래프, 표 등 자료나 삽화의 크기에 따라서 탐구활동의 지면 수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단순히 지면 비율로만 탐구활동의 비중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각 교과서 단원별로 탐구활동의 과제 수를 표 3과 같이 나타내었다.

탐구활동의 지면 비중이 높았던 A, D, E가 과제 수도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탐구활동이라 명명된 것 외의 부분에서 발문형식으로 과제를 제시한 것이 많아 전체 과제 수가 많게 나타났다. E는 한 단위의 탐구활동에 과제 수가 많이 제시되었다. B와 C는 상대적으로 과제 수가 적었다. B는 한 탐구활동 당 과제 수가 1개인 경우가 많았고, C는 한 탐구활동에 제시된 지도, 사진, 도표 등의 자료 자체가 넓은 지면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탐구활동이 차지하는 지면

표 2.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 지면 비율²⁾³⁾

대단원	출판사	대단원 지면 수	탐구활동 지면 수	구성비(%)
I.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A	28	12.5	44.6
	B	26	7	26.9
	C	30	8	26.6
	D	28	13.5	48.2
	E	26	17	65.4
II. 지형 환경과 생태계	A	32	14	43.7
	B	34	12	35.3
	C	46	15	32.6
	D	34	16.5	48.5
	E	34	23	67.6
III. 기후 환경의 변화	A	28	10	35.7
	B	34	8.5	25.0
	C	34	8	23.5
	D	36	17.5	48.6
	E	30	18	60.0
IV. 거주 공간의 변화	A	32	11	34.3
	B	32	6	18.8
	C	42	14	33.3
	D	34	17	50.0
	E	37	20	54.1
V.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A	38	17	44.7
	B	34	7	20.6
	C	42	11.5	27.4
	D	34	18.5	54.4
	E	38	19.5	51.3
VI. 지역 조사와 지리 정보 처리	A	16	7	43.7
	B	18	6.5	36.1
	C	24	9	37.5
	D	16	7	43.8
	E	14	7.5	53.6
VII. 다양한 우리 국토	A	42	16	38.1
	B	42	10.5	25
	C	54	12.5	23.1
	D	50	20.5	41.0
	E	48	22	45.8
VIII.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A	22	8.5	38.6
	B	26	7.5	28.8
	C	34	11	32.4
	D	22	10.5	47.7
	E	22	12	54.5
전체	A	238	96	40.3
	B	246	65	26.4
	C	306	86.5	28.2
	D	254	121	47.6
	E	249	139	55.8

표 3. 단원별 탐구활동 과제 수

대단원	출판사	과제 수	대단원	출판사	과제 수
I.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A	34	V.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A	49
	B	17		B	28
	C	23		C	32
	D	30		D	43
	E	31		E	45
II. 지형 환경과 생태계	A	45	VI. 지역 조사와 지리 정보 처리	A	24
	B	30		B	17
	C	32		C	17
	D	38		D	14
	E	44		E	12
III. 기후 환경의 변화	A	27	VII. 다양한 우리 국토	A	53
	B	31		B	36
	C	29		C	38
	D	42		D	50
	E	35		E	58
IV. 거주 공간의 변화	A	34	VIII.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A	28
	B	18		B	28
	C	34		C	26
	D	34		D	20
	E	50		E	29
합계	A	292	지면 당 평균 과제 수	A	1.2
	B	205		B	0.8
	C	231		C	0.8
	D	271		D	1.1
	E	304		E	1.2

수에 비해서 탐구활동 과제 수가 다른 교과서에 비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과제 유형별 비중

탐구활동이 교과서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양적인 비중뿐만 아니라 탐구활동의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학습자의 발산적 사고를 자극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구활동의 탐구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단원인 “IV. 거주 공간의 변화” 탐구활동을 교과서별로 분석하여 과제 유형별 수를 표 8과 같이 나타내었다. 서술어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형태만 살펴보면 “발표해보자, 생각해보자, 토론해보자”는 ‘토론 및 발표형’, “비교해보자, 분석해보자”는 ‘자료 비교·분석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분류할 경우 과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활동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과제 유형별

분류는 단순히 서술어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과제 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자료1〉을 보고 총 경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당 경지 면적이 증가하는 이유를 발표해보자”라는 과제일 경우 “~를 발표해보자”의 형식을 나타내지만 본문내용에서 그 답을 쉽게 찾아 답할 수 있는 과제이므로 ‘토론 및 발표형’이 아닌 이미 배운 교과내용을 토대로 주어진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묻는 ‘내용 확인 및 단순과제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4는 유형별 과제 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과제 유형의 고른 분배가 나타났다. 특히 자료 조사 및 수집형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B는 자료 조사 및 수집형이나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형의 수가 매우 적었다. E는 내용 확인 및 단순과제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

표 4. “IV. 거주 공간의 변화” 탐구활동의 과제 유형별 수

출판사	과제 유형	과제 수	비중(%)
A	내용 확인 및 단순과제형	13	38.2
	자료 비교·분석형	9	26.5
	자료 조사 및 수집형	6	17.6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형	1	3.0
	토론 및 발표형	5	14.7
B	내용 확인 및 단순과제형	9	50.0
	자료 비교·분석형	6	33.3
	자료 조사 및 수집형	1	5.6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형	-	-
	토론 및 발표형	2	11.1
C	내용 확인 및 단순과제형	19	55.9
	자료 비교·분석형	6	17.6
	자료 조사 및 수집형	2	5.9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형	2	5.9
	토론 및 발표형	5	14.7
D	내용 확인 및 단순과제형	22	64.7
	자료 비교·분석형	8	23.5
	자료 조사 및 수집형	2	5.9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형	1	2.9
	토론 및 발표형	1	2.9
E	내용 확인 및 단순과제형	22	44.0
	자료 비교·분석형	13	26.0
	자료 조사 및 수집형	8	16.0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형	3	6.0
	토론 및 발표형	4	8.0

하고 있지만 다른 교과서에서 매우 적은 수를 나타냈던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형과 토론 및 발표형의 개수가 많았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기는 하나 다른 교과서와 비교하였을 때 같은 유형의 과제라 할지라도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었다.

5종 교과서 모두 내용 확인 및 단순과제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형이나 토론 및 발표형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용 확인 및 단순과제형은 주어진 도표나 그래프, 지도를 그대로 읽거나 본문에 정답이 있어 단어 또는 간단한 문장으로 답안을 제시할 수 있거나 두 자료를 단순히 비교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자료 비교·분석형은 여러 자료를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다른 상황에 적용해보거나 또 다른 결론을 추론하는 것이 많았다.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형은 답사 계획을 짜거나 모둠 활동식으로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었다. 토론 및 발표형은 주어진 사례를 보고 찬반토론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을 제

시하는 것이었다.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형, 토론 및 발표형은 한정된 수업 여건이나 정해진 수업시간 내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여겨져 다른 유형의 과제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확인 및 단순과제형의 경우 괄호 넣기, 단답형 등으로 단편적인 지식을 요구하여 보다 많은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수민, 2011). 또한 더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활동을 하기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고차원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이나 탐구활동의 자료 및 지문에서 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과제 자체만으로 학습자의 고차사고력을 자극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내용 확인 및 단순과제형은 연관된 또 다른 과제를 위한 단계적 학습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이미 배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정의하거나 분류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자료조사형의 경우 교과서 내에서 제시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루거나 조사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자료수집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가 실제 교실현장에서는 얼마나 의미있게 수행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정해진 교실 수업 시간 내에 수행하기 어렵고 조사해야 할 내용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과제는 교사의 설명으로 대신하거나 단순히 자료를 살펴보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실현장에서의 활용도를 고려한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토론 및 발표형이나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형의 경우 답이 정해져있지 않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학습자의 고차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으며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교과서의 탐구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또한 토론 및 발표형이나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형은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현상, 사례에 대한 분석, 적용, 종합적 사고가 수반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탐구활동이 제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데 중요한 과제 유형이다. 따라서 단순히 교과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과제의 비중을 줄이고 학습자

들의 고차사고력 및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과제 유형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2. 탐구활동 발문 분석

1) 사고 수준에 따른 발문 분석

단순한 기억을 되묻는 발문은 학습자로 하여금 지식에 대한 기억과 단순 재생 등 낮은 수준의 사고만을 하게 한다(조은아, 2008). 반면,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스스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어떠한 결과를 예측, 추론하게 하는 발문을 통해 학습자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한 적용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력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문의 유형에 따라 형성되는 사고 수준은 다르며 특정한 발문만이 적합하거나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각 교과 내용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학습자의 사고 수준을 고려한 발문이 제시될 때 학습자의 사고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탐구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표 5는 5종교과서 탐구활동을 발문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유형별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Blosser의 발문 분류체계에 따른 탐구활동 발문 유형 수

교과서	발문 유형		발문 수	비중(%)	
A	폐쇄적 발문	인지·기억	9	26.5	58.9
		수렴적 사고	11	32.4	
	개방적 발문	확산적 사고	13	38.2	41.1
		평가적 사고	1	2.9	
B	폐쇄적 발문	인지·기억	4	22.2	66.7
		수렴적 사고	8	44.5	
	개방적 발문	확산적 사고	4	22.2	33.3
		평가적 사고	2	11.1	
C	폐쇄적 발문	인지·기억	13	38.2	70.6
		수렴적 사고	11	32.4	
	개방적 발문	확산적 사고	10	29.4	29.4
		평가적 사고	-	-	
D	폐쇄적 발문	인지·기억	13	38.2	85.3
		수렴적 사고	16	47.1	
	개방적 발문	확산적 사고	3	8.8	14.7
		평가적 사고	2	5.9	
E	폐쇄적 발문	인지·기억	10	20.0	52.0
		수렴적 사고	16	32.0	
	개방적 발문	확산적 사고	19	38.0	48.0
		평가적 사고	5	10.0	

우선 발문의 비중을 살펴보면 5종 교과서 모두 대체로 폐쇄적 발문의 비중이 높고 개방적 발문의 비중이 낮았다. 폐쇄적 발문이 50%이상을 차지했고, 개방적 발문은 50%를 넘지 못했다. 특히 D는 폐쇄적 발문이 85.3%를 차지하는 데 비해 개방적 발문은 14.7%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또한 5종 교과서에서 개방적 발문 중 평가적 사고 발문은 10% 내외로 그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C의 경우 인지·기억적 사고 발문과 수렴적 사고 발문을 구분하기 모호하였다. 발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식은 수렴적 사고 유형이었지만 발문에 대한 답이 사진이나 그래프 자료 외에 제시된 글 자료에 직접적으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자료2>를 통해 도시 내부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가가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보자.”(C, p.148)의 경우 발문 자체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추론해야하는 발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당 탐구활동 <자료2>에 “접근성이 높을수록 지가가 높아진다. …(중략)… 지가가 가장 높은 도심에서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의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중추 관리 기능이나 전문 서비스업 등이 입지한다.”(C, p.148)와 같이 설명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본문에서 접근성과 지대에 따른 지역 분화를 학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단순히 기억을 재생하는 인지·기억적 사고로도 주어진 발문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확산적 사고 발문의 경우 Blosser의 분류에서 ‘개방적 예측’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산출, 고안, 종합하는 것이라 하였다(김시연, 2001). 따라서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시한 발문은 확산적 발문으로 분류하였다.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발문의 경우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는 분명하지만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종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혜진, 2012). 자료를 조사하는 기능을 통해 학습자는 단순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과내용을 토대로 더 확장적인 사고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다현, 2007).

“내가 사는 지역명의 유래를 조사해보자.”(A, p.104), “<자료5>의 (가)를 참고하여 대도시의 경우 영화 상영관

의 도심 및 부도심 집중 현상이 심화하였는지 조사해보자”(E, p.139)등의 발문은 수업시간에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확장적 사고를 통한 고차사고력 함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실제 교실 현장에서 이러한 자료 수집에 대한 과제가 본 의도대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E는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는 발문이 확산적 사고 유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E는 확산적 사고 발문 유형의 비중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높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교과서에 비해 고차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확산적 사고 발문의 비중이 명확하게 높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확산적 사고 발문에 속해있는 발문 중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요구하는 발문은 수업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교실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평가적 사고 발문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을 통해 자신의 주장 또는 계획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발문이다. 평가적 사고 발문은 A는 2.9%, B는 11.1%, C는 0.0%, D는 5.9%, E는 10.0%로 5종 교과서에서 모두 네 가지 유형의 발문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 내용에 따라 평가적 발문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적 발문이 제한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다음은 C교과서 중 ‘도시재개발’에 관한 탐구활동이다.

- 주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 재개발
- 제시자료
- <자료1>: 서울시 관악구 난곡 지역은 2001년 6월부터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후략)…
- 오마이뉴스, 2008. 6. 22. -
- <자료2>: 소설 “깡이부리말 아이들”의 무대로 잘 알려진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일대는 도시 빈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후략)…
- 한겨레 신문, 2012. 9. 26. -
- <자료3>: 전주시 풍남동 한옥 마을은 2000년대 이전까지 미개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곳이었으나, 2002년 본격화된 ‘전통문화 도시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후략)…
- 전북일보, 2008. 11. 24. -
- 발문:

1. <자료1>과 같은 재개발 방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해보자.
2. <자료2>와 <자료3>을 통해 도시 재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토론해보자. (C, p.153)

위의 제시문은 재개발의 다양한 방식을 신문 기사와 사진을 통해 사례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의 방식에 따라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발문은 학습자에게 <자료1>보다는 <자료2>, <자료3>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제한하고 있다. 그보다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재개발 방식을 소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스스로 판단하여 올바른 재개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평가적 사고 발문이다.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평가적 사고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1>과 같이~”, “<자료2>, <자료3>을 통해~”와 같이 사고를 제한하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같은 주제의 탐구활동이라 할지라도 제시문에 따라 발문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도농통합시’ 주제로 탐구활동 발문을 두 교과서가 다르게 제시한 예시이다.

- 제시문: 제철 공업으로 유명한 포항시와 연오랑 세오녀 전설로 유명한 영일군은 1995년 통합되어 도농 통합 포항시가 되었다. 도농 통합시는 생활권이 비슷한 시·군을 통합한 것으로 도시와 촌락 지역이 함께 있는 시이다. 1995년 많은 시와 주변의 군이 통합되었는데, 농촌과 도시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시내의 동지역이 배후지인 면 지역에 행정, 의료, 문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
- 제시자료: 기계면과 제철동의 경관 비교
- 발문: 도농 통합시 사례 지역을 찾아보고, 도농 통합시의 장점을 조사해 보자. (A, p.110)

- 제시문: 충청남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아산시는 1995년 통합시 출범 이후 산림·논·밭의 면적은 감소하였지만, 도시 및 인공 구조물 등의 면적은 증가하였다. 천안시와 인접한 배방읍은 천안시와 이어지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으며, 탕정면과 신창면 등은 대규모 산업 단지가 입지하거나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도시적 토지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지역(유형2)외에도, 아산시에는 순수 농촌 지역(유형3), 도농 복합 지역(유형3)과 같은 다양한 정주 유형이 존재한다. 농경지가 중심 시가지의 확장을 막는 완충 지역 기능을 하는 염치읍은 도농 복합 지역(유형1)에 속하지만, 송악면은 농업 인력 등의 농촌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순수 농촌 지역(유형3)에 속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라 할 수 있다.

- 제시자료: 아산지의 읍면 지역 유형
- 발문: <자료1>과 같이 도농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보자. (E, p.116-117)

A과 E는 각기 다른 자료를 토대로 ‘도농 통합시의 장점’이라는 유사한 주제의 발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을 살펴보면 A의 제시문은 E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명확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A의 제시문에는 이미 발문에 대한 답이 거의 주어져 있다. 따라서 A에서 도농 통합시의 장점에 대한 발문은 발문상으로는 ‘조사해보자’와 같이 확산적 사고 발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주어진 자료에서 답을 찾아 폐쇄적 예측이 가능한 수렴적 사고 발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E는 제시문에서 각 지역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나열하고 있으며 주어진 지도와 함께 자료를 읽어야 하므로 학습자가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제시된 발문은 주어진 자료 내에서 쉽게 예측할 수 없으며 자료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사고과정을 거쳐 개방적 예측을 통해 발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므로 확장적 사고 발문에 해당한다. 즉, 탐구활동의 발문은 형태적인 유형뿐만 아니라 발문과 함께 주어지는 제시문에 따라서도 학습자의 사고 신장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탐구활동에서 제시된 자료와 연결된 발문의 적절한 결합을 고려한 발문이 신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2) 발문의 구조적 특징

탐구활동은 보통 몇 개의 발문이 묶여서 제시되는 세트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지도, 표, 그래프 등의 자료를 제시한 뒤 그에 대한 발문을 1~4개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세트형 과제는 학습자들

표 6. 탐구활동 구조별 과제 수⁵⁾

교과서	구조유형	과제 수	비중(%)
A	단독구조	9	50.0
	나열구조	4	22.2
	계열구조	5	27.8
B	단독구조	2	20.0
	나열구조	8	80.0
	계열구조	-	-
C	단독구조	-	-
	나열구조	6	46.1
	계열구조	7	53.9
D	단독구조	2	13.3
	나열구조	6	40.0
	계열구조	7	46.7
E	단독구조	5	22.7
	나열구조	12	54.6
	계열구조	5	22.7

이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이간용, 2005). 이 절에서는 한 단위의 탐구활동 내에 제시된 발문들 간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발문 하나하나를 따로 살펴보지 않고 한 단위의 탐구활동 내에서 발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앞서 탐구활동으로 간주되어 분석했던 대단원 매듭짓기(A), 대단원 마무리(B), 단원 마무리(C), 대단원 마무리(D), 대단원 마무리(E)는 활동 특성상 몇 개의 발문이 묶인 세트로 구성되기 어렵다고 보아 위계성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6은 탐구활동 구조별 과제 수를 나타낸 것이다.

C는 하나의 발문으로만 구성된 단독구조는 보이지 않았으며 두 개 이상의 발문이 묶인 세트형 탐구활동이 주로 제시되었다. C를 제외한 나머지 4종 교과서는 계열구조의 발문이 50%를 넘지 않았다. 특히 B에서는 계열구조로 구성된 탐구활동이 없었으며 발문이 세트로 구성된 탐구활동은 모두 나열구조를 나타내었다. 집필자는 분명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발문을 묶어 제시하였다 할지라도 발문 간 뚜렷한 연계성이나 위계성이 보이지 않았다.

단독구조는 하나의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요하거나 단순히 특정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 과제구성에서 주로 나타났다. A가 단독구조의 수가 가장 많은 이유도 ‘사례 탐구’, ‘더 알아보기’ 등과 같은 부분이 탐구활동으로 간주되어 분석에 포함되었기 때

문이다. 다음은 단일구조로 제시된 탐구활동의 예이다.

- 주제: 중심지 이론
- 제시자료
중심지 이론에 대한 제시글
중심지 이론으로 살펴본 정주 체계 모식도
- 발문: 교통의 발달에 따라 중심지의 계층 질서가 달라지는 사례를 찾아보자. (A, p.112)

나열구조는 탐구활동에 다양한 자료가 제시될 경우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묻는 발문보다는 자료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발문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E의 경우 한 단위의 탐구활동에 본문내용에 따른 각기 다른 여러 사례가 자료로 제시되었다. 각 사례들은 본문 주제와 연관되어 있었지만 자료 간의 연계성은 찾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나열구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나열구조로 제시된 탐구활동의 예이다.

- 주제: 촌락의 변화
- 제시자료
<자료3> 어청도의 공간 구조 제시글, 어청도의 시설 분포도

〈자료4〉 영덕군 대진리 어촌 체험 마을, 고기잡이 체험사진, 대진리 체험마을 안내도 사진

• 발문

1. 〈자료3〉의 어청도의 시설 분포 지도에 표시된 ‘평상’의 용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2. 〈자료4〉의 대진리에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다른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E, p.113)

계열구조는 여러 자료가 제시되었으며 각 자료가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첫 번째 발문은 자료와 본문내용을 연계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발문은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제시된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일반화, 적용, 토론 등 보다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계열구조로 제시된 탐구활동의 예이다.

• 주제: 촌락의 변화 모습

• 제시 자료

〈사례1〉 토고미 마을(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의 사진과 설명

〈사례2〉 문항 마을(경남 남해군 설천면)의 사진과 설명

〈사례3〉 용오름 산촌 생태마을(강원도 홍천군 서석면)의 사진과 설명

• 발문

1. 〈사례1〉~〈사례3〉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특징을 적어보자.
2. 〈사례1〉~〈사례3〉에 나타난 사업을 통해 마을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보자. (D, p.123)

또한 제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거나 연결하여 활동하지 않고 각 자료에 대한 과제를 나누어 수행하더라도 각 자료들이 위계적으로 연계되어있어 각 발문을 해결하면서 학습자들이 보다 고차원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주제: 근교 농촌의 변화와 주민 생활

• 제시 자료

〈자료1〉 김포시 고촌읍의 1974년과 2012년 변화모습

위성사진, 설명문

〈자료2〉 근교 농촌에 거주하는 김○○씨 일상 모습 그림

• 발문

1. 〈자료1〉을 통해 김포시 고촌읍의 변화된 모습을 토지 이용과 생활양식 측면에서 비교해보자.
2. 〈자료2〉를 보고 근교 농촌의 주민 생활 모습이 전 통적 농촌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보자.

(C, p.159)

또한 일반적으로 계열구조는 단순한 지식이나 지능을 요하는 것에서부터 보다 고차원적 사고를 통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발문의 점층적 위계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탐구활동은 역구조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음은 역계열구조로 제시된 탐구활동의 예이다.

• 주제: 도시 내부 구조의 특색

• 제시자료

〈사례1〉 도시 내부의 다양한 경관 및 설명

〈사례2〉 구별 주간 인구 지수 지도

〈사례3〉 서울의 미래 도시 구조도

• 발문

1. 〈사례1〉을 보고 도시 내부 구조의 특색을 설명해 보자.
2. 〈사례2〉를 보고 구별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기능을 설명해 보자.
3. 〈사례3〉을 보고 서울특별시의 도심과 부도심, 지역 중심 등의 위치와 특징을 정리해 보자.

(D, p.133)

학습자들은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높은 사고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 때, 탐구활동은 학습자들이 이미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즉, 교과서 탐구활동은 교과 본문 주제를 더 깊게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 내용과 관련된 주제나 소재를 수단으로 학습자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장치이다(이간용, 2005). 질 높은 사고는 먼저 단편적인 정보나 지식을 인식하고 이어 그것들을 의미 있게 엮어내는 일관된 구조로 만들어 설명과 예측을 할 수 있는 정신작용이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위해서 탐구활동은 연계

표 7. 교과서 자료별 개수

출판사	글	지도	그래프	표	사진	그림
A	14	12	10	3	23	5
B	8	10	1	-	11	-
C	18	11	7	3	26	7
D	15	19	8	-	26	7
E	20	39	11	6	24	7

표 8. 자료 조합수별 분포

자료 조합수	A	B	C	D	E
1개	6	3	1	0	2
2개	9	6	2	7	6
3개	4	0	6	7	8
4개	1	0	2	0	6
5개	0	0	1	0	0
6개	0	0	0	0	0

성 없는 발문이 단순히 나열되기 보다는 발문간의 위계 구조를 가지고 구성되어야 한다. 나열구조는 형식상 여러 발문이 묶여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발문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점층적으로 고차사고력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한 단위의 탐구활동에 제시된 여러 발문을 해결함으로써 높은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계열구조의 발문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3. 탐구활동 자료 분석

탐구활동에서 활용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탐구활동에 제시된 자료들이 형태별로 각각 몇 개씩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본 후, 이 자료들이 단독으로 제시되었는지 혹은 여러 형태의 자료가 조합되어 제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탐구활동 자료는 글, 지도, 그래프, 표, 사진, 그림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탐구활동으로 간주되어 분석했던 대단원 매듭짓기(A), 대단원 마무리(B), 단원 마무리(C), 대단원 마무리(D), 대단원 마무리(E)는 학습자가 자료를 분석·종합을 토대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주로 단순히 활동위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 절과 같이 본 절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형태는 탐구활동에 제시된 자료의 개수와 상관없이 형태적인 측면만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한 탐구활동에 지도 2개가 제시될 경우, 자료 개수는 지도 2개이지만 형태는 다른 자료와

조합된 것이 아닌 지도만 단독으로 제시된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글은 그림, 사진, 그래프, 지도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나타내는 경우는 개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7은 교과서의 자료별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탐구활동에서 활용된 자료의 종류 중 글이나 지도, 사진 등의 자료는 많았지만 그래프, 표, 그림은 대체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는 단순 묘사, 모식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나 분석 단원인 도시 단원의 특성상 표나 그래프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탐구활동 자료의 조합방식을 분석하였다. 표 8은 탐구활동이 몇 개의 자료를 조합하였는지 나타낸 것이고, 표 9는 자료 조합이 유형별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교과서는 5개 이상의 자료를 조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의 경우 3개 이상의 자료를 조합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다. A도 1~2개의 자료를 조합한 경우가 많았고, E는 그에 비해 다양한 자료를 조합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탐구활동 자료가 다양하고 여러 형태를 조합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거나 사고력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이간용, 2005). 오히려 전형적인 자료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자료가 제시

표 9. 자료 조합 유형별 분포

조합수	조합유형	출판사					조합유형	출판사				
		A	B	C	D	E		A	B	C	D	E
1	글	1	2	-	-	-	표	-	-	-	-	-
	지도	2	1	-	-	1	사진	-	-	-	-	-
	그래프	2	-	1	-	-	그림	1	-	-	-	1
2	글+사진	4	-	1	1	-	지도+그림	1	-	-	-	1
	글+그래프	1	-	-	1	-	그래프+표	-	-	-	-	-
	글+그림	1	-	-	1	-	그래프+사진	-	-	-	1	-
	글+지도	1	3	-	-	1	그래프+그림	-	-	-	-	-
	글+표	-	-	-	-	-	표+사진	-	-	-	-	-
	지도+그래프	-	1	-	1	-	표+그림	-	-	-	-	-
	지도+표	1	-	-	-	4	사진+그림	-	-	-	-	-
	지도+사진	-	2	1	2	-						
3	글+지도+그래프	-	-	1	-	1	지도+그래프+표	-	-	-	-	-
	글+지도+표	1	-	1	-	-	지도+그래프+사진	-	-	-	-	-
	글+지도+사진	1	-	2	3	4	지도+그래프+그림	-	-	-	1	-
	글+지도+그림	-	-	1	-	2	지도+표+사진	-	-	-	-	-
	글+그래프+표	-	-	-	-	-	지도+표+그림	-	-	-	-	-
	글+그래프+사진	1	-	-	-	1	지도+사진+그림	-	-	-	1	-
	글+그래프+그림	-	-	-	1	-	그래프+표+사진	-	-	-	-	-
	글+표+사진	-	-	-	-	-	그래프+표+그림	-	-	-	-	-
	글+표+그림	-	-	-	-	-	그래프+사진+그림	-	-	-	-	-
	1	-	1	1	-	표+사진+그림	-	-	-	-	-	
4	글+지도+그래프+표	-	-	-	-	-	글+그래프+사진+그림	-	-	-	-	-
	글+지도+그래프+사진	-	-	-	-	3	글+표+사진+그림	-	-	-	-	-
	글+지도+그래프+그림	-	-	-	-	-	지도+그래프+표+사진	-	-	-	-	-
	글+지도+표+사진	1	-	-	-	1	지도+그래프+표+그림	-	-	1	-	-
	글+지도+표+그림	-	-	-	-	-	지도+그래프+사진+그림	-	-	-	-	-
	글+지도+사진+그림	-	-	-	-	1	지도+표+사진+그림	-	-	-	-	1
	글+그래프+표+사진	-	-	1	-	-	그래프+표+사진+그림	-	-	-	-	-
글+그래프+표+그림	-	-	-	-	-							
5	글+지도+그래프+표+사진	-	-	-	-	-	글+지도+표+사진+그림	-	-	-	-	-
	글+지도+그래프+표+그림	-	-	-	-	-	글+그래프+표+사진+그림	-	-	-	-	-
	글+지도+그래프+사진+그림	-	-	1	-	-	지도+그래프+표+사진+그림	-	-	-	-	-

되는 경우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사고하는 관계적 사고의 함양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학습활동> 자료를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를 조합한 과제의 비중을 현재보다 늘릴 필요는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를 조합한 탐구활동 중 대부분은 자료를 조합하여 종합·분석하는 과제보다는 여러 자료에 따른 여러 발문을 제시하여 한 발문 당 한 자료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단위의 탐구활동에

여러 자료가 제시되더라도 결국 학습자들은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제시된 여러 자료간의 관계를 찾기 어려워지고 그러한 탐구활동은 비록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관계적 사고의 신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탐구활동에서 단순히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제시되지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자료를 조합하여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 자료들은 종합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문과의 연관성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제시된 자료 중 글의 경우 탐구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것은 많지 않고, 주로 사진이나 지도, 그래프 등과 연관되어 서술된 것이 많다. 다시 말해, 글은 자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도, 그래프, 표 등에 따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지도, 그래프, 표 등이 교과 내용과 연관되어 의미있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교과서 탐구활동에서는 도해력(圖解力, graphicacy) 함양을 위한 자료가 많이 활용되었다고 분석된다. Balchin and Coleman (1965)은 도해력이 문자나 숫자로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공간정보를 지도, 사진, 차트, 그래프 등과 같은 시각적 도구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다(이종원, 2011). 도해력은 도해적 표출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Loben and Downs는 도해적 표출이란 이차원의 표면 도표 사진 및 기타 공간 표현물들을 지리학의 기본일 뿐 아니라 도해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라고 정의하면서 도해력은 지리학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최남수, 1998). 도해력은 타학문과 지리학이 구분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로서 학습자는 지리교육을 통해 지리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까지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과서 탐구활동에 도해력 함양을 위한 지도, 사진, 그래프, 표 등의 활용은 그 양적 비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까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질적인 측면은 다음 절에서 분석하였다.

4. 탐구활동 적절성 분석

탐구활동은 대개 교과내용을 학습한 이후 후반에 제시된다. 따라서 탐구활동은 학습자가 학습한 교과내용을 토대로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내용, 발문 및 자료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교과서 탐구활동의 예를 들어 그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1) 교과 내용과 탐구활동의 연관성

• 교과내용: 여가 생활과 여가 공간의 변화

• 제시자료

<가> 서울 영화관의 스크린 분포 변화(1980~2011)

<나> 전국 영화관의 스크린 분포 변화(1980~2011)

• 발문

2. <가>를 참고하여 대도시의 경우 영화 상영관의 도심 및 부도심 집중 현상이 심화하였는지 조사해 보자.
3. <나>를 보고 영화 상영관이 증가한 지역과 감소한 지역을 하나씩 골라 증가 또는 감소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E, p.139)

위의 탐구활동에 제시된 자료는 대도시 또는 도심으로 영화관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소도시나 주변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화관의 집중도가 낮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발문 역시 지역에 따른 영화관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것을 묻고 있으므로 이 탐구활동은 여가생활에 대한 주제보다는 도시체계, 도시 내부구조관련 내용에 더 적절하다. 위의 탐구활동으로 영화관이라는 여가공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주어진 자료나 발문이 앞서 제시된 교과내용과 명확하게 연관성이 있지는 않다.

2) 탐구활동 자료와 발문과의 연관성

• 제시자료

- ①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금산군 남일면의 마을에서는 관광객들도 주민의 도움으로 인삼을 캘 수 있다. 금산은 사람인(人)자를 닮은 인삼의 재배지로 유명하다.
- ②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읍의 금산 수삼 센터는 전국 인삼 생산과 유통량의 80%를 차지한다.
- ③ 대전의 농수산물 도매 시장: 충청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모여 판매되는 도매 시장이다.
- ④ 서울의 경동 시장: 인삼을 포함하여 전국의 약재가 모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한약재 시장이다. 외국인에게도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 ⑤ 뉴욕의 인삼 매장: 한국 인삼 회사가 뉴욕에 인삼 매장을 개점하여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 인삼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발문

1. ①~⑤ 지역을 인삼의 유통 과정을 중심으로 도시체계와 연결지어 계층별로 나열해 보고 각 지역의 배후지를 비교해 보자. (A, p. 115)

위의 탐구활동 자료는 인삼 유통과정을 설명하고 있

으며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을 도시 체계와 연결지어 계층별로 나열해보도록 하고 있다. 자료에 제시된 지역은 해당 지역을 알고 있는 학습자의 경우 지역명만 보아도 계층별로 나열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학습자가 이 탐구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자료에 제시된 지역별 설명에 문제가 있다. 금산읍은 배후지가 ‘전국’에 해당하는 것처럼 서술하였고 대전은 배후지가 ‘충청권’인 것처럼 서술하였다. 또한 대전은 판매되는 재화가 ‘농수산물’, 서울은 판매되는 재화가 ‘약재’인 것처럼 서술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이전에 학습한 “소도시는 대도시보다 보유 기능이 적고 배후지가 좁은데 이를 저차 중심지라고 하고, 대도시처럼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며 넓은 배후지를 갖는 중심지를 고차 중심지라고 한다.”(A, p.112)라는 내용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탐구활동이다. 금산읍은 대전보다 저차중심지이지만 서술상 배후지가 더 넓어보이고, 서울은 대전보다 고차중심지이지만 서술상 판매되는 재화가 더 적어보인다. 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발문에 초점을 맞춘 분명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학습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서술을 하지 않은 자료로 배후지 및 재화와 관련하여 도시 체계를 구분하는 발문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

3) 탐구활동 자료의 적절성

• 제시자료

〈사례1〉

과거 인천에서 부촌이면서 주민들의 단합이 좋기로 유명했던 이 지역은, 역세권이고 주위에 학교가 많아 터 좋은 재개발지역으로 꼽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주민들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동네 곳곳에서 주민들이 눈길이 마주쳐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지나가는 등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이곳에서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려고 재개발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갈등만 커진 셈이었다.

이곳은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려는 재개발 추진 위원회와 주민의 득실을 따져 추진하지는 비상대책 위원회, 생존권과 이주 대책을 외치는 세입자들, 아예 개발을 원하지 않는 주민 등으로 나뉘어 서로 팽팽한 줄다리를 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조합이 설립되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시공사

를 찾지 못해 재개발이 멈춰섰다. 먼 친척보다 가깝다는 이웃사촌이 이제는 견원지간이 되어버렸다.

(A, p.129)

위의 자료는 재개발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예시로 제시되었다. 자료에 제시된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 재개발 예정지이다. 그러나 제시된 글이 지나치게 해당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동네 곳곳에서 주민들이 눈길이 마주쳐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지나가는 등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먼 친척보다 가깝다는 이웃사촌이 이제는 견원지간이 되어버렸다.” 등의 서술이 없어도 제시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의 자료는 실제 언론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것이기는 하나 교과서에서 특정 사례 지역이나 인물에 대해 학습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

4) 발문 자체의 적절성

- 제시자료: 중심지로서의 도시에 관한 제시글, 중심지이론 모식도

구분	중심지 수	배후지의 면적	중심지 간 거리	중심 기능의 종류
고차 중심지	적다	㉠	멀다	㉡
저차 중심지	㉢	좁다	㉣	다양하지 않다.

- 발문: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의 특징을 정리한 위 표의 빈칸을 채워보자. (D p.127)

위의 자료는 빈칸을 채우는 간단한 발문이다. 따라서 답을 할 수 있는 표 자체가 발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주어진 표를 보면 이미 답이 다 주어져 있는 것과 다름없다. 학습자들은 자료를 참고하거나 사고를 하지 않고 이미 적혀 있는 보기의 반대어를 빈칸에 채워도 발문에 대한 정답이 된다. 발문 자체도 단순한 사고를 자극하는 수준이지만 학습자는 그마저도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발문이다. 의미있는 발문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 빈칸으로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거나 앞서 학습한 내용을 재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

5) 난이도의 적절성

- 제시자료: 〈자료1〉 여가 활동 유형별 참여 비율

• 발문

1. <자료1>을 보고 자신은 여가 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발표해보자.

(C, p.163)

「한국지리」 교과서의 학습자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자이다. 그러나 위의 탐구활동은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자에게 제시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낮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여가 활동 유형별 참여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와 각자의 여가 활동에 관한 발문은 큰 연관성이 없다. 오히려 그래프를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을 물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개인과 관련된 발문을 하고자 하면 여가 시간에 대한 개발을 요하는 등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V. 요약 및 결론

2009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사회과 교육과정의 쟁점인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즉,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탐구 및 문제 해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서는 교수 학습에 있어서 주요한 수업도구이며 실제 교실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의 지식적 측면 뿐 아니라 가치·태도와 기능적 측면의 함양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탐구가 중시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탐구활동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고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리 교과서의 탐구활동이 이러한 교육목표에 얼마나 부합하여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 「한국지리」 5종 교과서 탐구활동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5종 교과서 탐구활동은 탐구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교과내용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 가정(假定), 자료 등을 통해 고차사고력을 함양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필자의 의도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

견되었다.

첫째, 탐구활동의 비중과 과제 유형이다. 탐구활동의 비중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었지만 몇몇 교과서는(B, C) 다른 교과서에 비해 탐구활동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탐구활동이 제 역할을 하기에 다소 부족했다. 또한 탐구활동 과제 유형은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서 학습들의 탐구적 사고력을 자극하는 것보다 단순 이해를 요하는 것이 많아 탐구활동이 학습자의 교과 내용적 지식에 관한 이해를 돕는 데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탐구활동의 충분한 양적 비중의 확보 및 '탐구'에 초점을 둔 과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탐구활동의 발문이다. 먼저 사고수준에 따라 발문을 분석하였을 때 폐쇄적 발문이 개방적 발문에 비해 확연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서가 대부분이었다(B, C, D). 또한, 한 단위의 탐구활동에 제시된 발문이 단독으로 제시되거나 단순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발문간 위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한 단위의 탐구활동은 대개 여러 개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문들이 한 단위의 탐구활동 내에서 제시되었다는 것은 분명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발문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의 주제에 제시된 여러 형태의 자료와 그를 활용한 발문은 서로 위계성을 가지고 제시될 때 학습자들의 사고를 더 효과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관계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탐구활동의 발문 구성 시 발문을 통한 사고수준과 발문간의 위계성 및 연관성을 고려한 탐구활동의 개발이 더 필요하다.

셋째, 한 단위의 탐구활동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조합된 경우가 적었다. 5종 교과서 탐구활동에는 글, 지도, 그래프, 사진, 표, 그림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었다. 학습자들은 하나의 주제를 학습하더라도 그 주제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탐구활동을 단위별로 분석해보면 교과서 탐구활동에 한 두 개의 자료만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원 전체에 걸쳐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위의 탐구활동에서 그러한 자료들이 함께 묶여서 복합적으로 종합·분석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자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읽는 기능적 측면이 함양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지도, 그

래프 등을 읽어내는 도해력이 지리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조합되어 제시되는 것은 지리교과서의 탐구활동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조합된 탐구활동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구활동이 교과내용, 학습자의 사고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며 탐구활동 내의 자료와 발문의 연관성도 제한적이었다. 보통 탐구활동은 교과 내용을 학습한 뒤에 그에 따른 자료나 사례를 접하고 문제해결을 통한 고차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의 요소들과 적절하게 연관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후에 배울 내용을 탐구활동에 제시하거나 배운 내용과 큰 연관이 없는 탐구활동이 등장하여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탐구활동에 제시된 자료가 발문과 큰 연관성이 없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발문을 해결하기에 무리인 경우도 있었다. 탐구활동을 개발할 때 교과내용, 학습자의 사고수준, 난이도, 자료와 발문간의 연계성을 신중히 고려한 자료선택과 발문 구성이 필요하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탐구적 사고력 함양이 주요한 교육과정의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탐구활동은 교과서에서 매우 중요하다. 탐구활동의 질에 따라 교과서 전체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과서 집필 시 탐구활동은 비중, 과제 유형, 발문, 자료,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분석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구자가 선정한 특정한 분석틀만을 적용하여 일부 관점에 의해서만 분석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전체 단원의 탐구활동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거주 공간의 변화” 단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를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전체의 탐구활동 분석결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셋째,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지리교과내용을 토대로 교과서 내의 탐구활동을 분석하였으므로 실제 교실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탐구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향상이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은 다루지 않고 있다.

넷째, 교과서 내에서 탐구활동의 내용, 배열 및 형태는 교과서 집필자 또는 개발자의 특정한 의도에 의해 제시된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탐구활동의 내용, 배열 및 형태를 분석하였다.

註

- 1) 김다현(2007)의 ‘교과내용과 탐구활동, 탐구활동과 발문간의 연계성 분석을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 2) 해당 단원 전체 지면 수에서 탐구활동이 차지하는 지면 비중을 계산하였다.
- 3) 대단원명 표시 부분을 제외한 지면 수만 표시하였다.
- 4) 활동 과제 제시 없이 단순한 자료 제시만 하는 경우 탐구활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5) 발문 수가 아닌 세트 단위의 탐구활동 수를 나타낸 것이다.

참고문헌

강용옥, 1994, “사회과 교육에서 발문 전략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사회과교육학회지, 19, 241-257.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 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김다현, 2007,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 탐구활동 발문구성의 적정성 탐구,” 교과교육학연구, 11(1), 341-364.

김성희, 2003,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비교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동·박은아·박가나, 2005, 「사회 수업에서 학생평가를 잘 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시연, 2001,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발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찬빈, 2008,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탐구활동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영미, 2013, “창의성 향상을 위한 지리과 CPS 수업 모형의 개발 및 적용,” 한국지리학회지, 2(2), 123-136.

박미연, 2010,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1 교과서의 체제 및 내용 분석: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공주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병익·장준현·이정식·정진권·이경희·양희경·엄정훈·최명렬·송형준, 2013, 「고등학교 한국지리」, 천재교육.
- 박현주·오은혜, 2014, “사고변화를 위한 발문의 적용가능성,” *교육사상연구*, 28(2), 21-29.
- 박희두·박철웅·황의호·채기병·도정훈·김재기·조성호·이강준, 2013, 「고등학교 한국지리」, ㈜미래엔.
- 서태열·황상일·이보영·마경목·이준구·최도성·김한승·강봉균, 2013, 「고등학교 한국지리」, ㈜금성출판사.
- 신혜원, 2005,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의 자연지리 내용의 비교 분석 -제6차 공통사회(하)와 제7차 한국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옥경·황완길·송미숙·이태규·박현진·정승운·양승범, 2013, 「고등학교 한국지리」, ㈜지학사.
- 이간홍, 2005,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의 문제점 및 대안의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3), 405-418.
- 이남호, 2007, “반성적 사고 실천에 기초한 교육실습,” *교육사상연구*, 21(3), 181-200.
- 이두현, 2015,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한 지리학 기반의 융합인재교육(G-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녹색 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4(2), 169-186.
- 이종운, 2009, “정교화 이론에 의한 제7차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구성체계 분석,”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2011, “도해력 다시보기: 21세기 도해력의 의미와 지리교육의 과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1), 1-15.
- 이준구,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지리 교과서의 도시단원 내용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 201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탐구활동 발문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임경, 2001,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지혜, 2008,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지리내용의 위계성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민, 201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학습자료 분석과 활용 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욱, 2014,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한국지리학회지*, 3(1), 1-15.
- 조은아, 2008,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탐구활동 발문유형의 비교분석: 고등학교 1학년 일반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경수·모경환, 2009, 「사회과 교육」, 동문사.
- 최규학·위상복·유성종·강성열·최희만·우연섭·이우평·이훈정·조철민·최종필·김지현·강재호·이두현·윤정현, 2013, 「고등학교 한국지리」, 비상교육.
- 최남수, 1998, “지도교육을 통해서 본 도해력의 중요성,” *지리·환경교육*, 6(1), 15-30.
- 교신: 김영호,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younghokim@korea.ac.kr)
- Correspondence : Youngho Kim, 02841,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younghokim@korea.ac.kr)

투 고 일: 201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1월 25일
 투고확정일: 2016년 11월 26일

